

고향의 봄



재경진안군민회
회장 전승현

3월이다.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얼음장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른다. 마른 나무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드디어 봄이 우리에게 왔다.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봄이 오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바로 ‘고향의 봄’이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도 모든 세대가 알고 공유하는 노래인 듯싶다. 이렇게 고향은 세대 간 소통을 하는 단어이다.

나는 성수면 도통리에서 마령고등학교까지 걸어 다녔다. 사계절의 변화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 봄이 가장 인상적이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스스로 녹아내린다.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웅기종기 모인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린다. 눈과 발이 바쁘게 움직인다.

봄은 밥상에서도 알 수 있다. 달래, 냉이가 보인다. 향긋한 봄 햇살 머금은 쭈국은 일품이다. 입안 가득 봄기운이 퍼지며 깔깔한 입맛에 생기가 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맛있는 반찬인 쑥이 산과 들, 집 마당에까지 가득했다. 지천에 퍼져 있어 귀한 줄 몰랐던 그 고향의 쑥이 지금은 그립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다. 물을 대고 씨앗을 뿌려야 하는 봄이 있다. 이 시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풍성한 가을을 기대할 수 없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봄에 부지런해야 한다. 수확을 위해 기다림과 물 대기의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한다. 겨울은 반드시 다가온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

고향을 잃어버리면 봄도 잊고 만다. 우리들 마음의 봄을 더 잃기 전에 고향 3월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의 봄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